

사회

“두통약·해열제도 허용해야”

시민단체, 가정 상비약 슈퍼판매 추가법 개정 촉구

빠르면 올 8월부터 박카스를 비롯한 일반 의약품(44개 품목)의 슈퍼마켓 판매가 시행되지만 시민단체들은 두통약·해열제·지사제 등 가정 상비약의 추가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화제(15개), 정장제(11개), 외용제(6개), 자양강장 트링크(12개) 등 총 44개 품목의 일반 의약품의 의약품으로 전환해 약국의 판매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열제 등의 추가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가정상비약 약국의 판매 광주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박용섭 송원대 교수)는 “국민의 요구는 단순히 피로 해소제를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방침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 약국 중 0.4%인 3곳만이 심야응급 약국으로 등록돼 있다.

가정상비약과 광주시민연대는 심야에 시·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는 정부가 의약 문제가 아닌 국민 복지의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용섭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중국어 등 외국 관광객들은 몰갈이로 인해 배탈이 많아 지사제의 슈퍼마켓 판매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반대” 대한약사회장 단식

박카스와 가스명수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을 의약품으로 전환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약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16일 복지부의 일방적인 의약품 전환 발표에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약사회장으로 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해열제·두통약을 비롯한 종합감기약이나 지사제 등이 슈퍼 판매에서 제외되기에 대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해



소방동요 부르는 유치원생

16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광주시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아이사랑 유치원생들이 울릉과 함께 동요를 부르고 있다.

‘성추행 교장’ 수사 알고도 두달간 쉬쉬

전남교육청, 직위해제... 확인되면 파면키로

여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전남 모 여교 교장(광주 일부 6월 16일 6년) K(57)씨가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전남도 교육청은 경찰이 K씨에 대해 수사개시를 통보했지만 두달 가깝도록 사실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아 사태를 키웠고,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능동대응했다는 지적이다.

발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 상습 폭행 등 공직자 4대 비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 수사와 재판 등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K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량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가까운 교장 관사에서 이 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보문을 받았지만 교원 관리부서인 교육지원국에 이 사실을 알리지않아 교육지원국은 본보 등에 보도되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달 동안 교장과 학생에 대한 격리 등 조치를 취하지않은 채 방관하던 도 교육청은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 곧바로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항명 파동 채수창 전 서장 파면처분 취소소송 승소

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채 전 서장이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파면당했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광주경찰, 불법 게임장 운영 41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오모(36)씨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

고 인터넷 서버관리자 김모(36)씨 등 공범 40명을 불구속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10월 4일 중국 칭다오(靑島)에 “그랑

블투’라는 불법 게임물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서울·경기·경북·광주 등 국내 가맹점 13곳을 개설한 뒤 손님들이 게임 머니를 사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불법 환전을 통해 25여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발전에 전력해 달라”

고임상규 총장 또 다른 유서 총장실서 발견

어제 순천대에서 영결식

지난 13일 자살한 임상규 순천대 총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영결식에서는 임 총장이 대학에 미칠 과장 등을 우려하며 쓴 또 다른 유서 일부가 공개됐다.

영결식에서 이도건 순천대 기획처장은 “총장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며 유서 일부를 읽었다.

임 총장은 유서를 통해 “과문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인연이 안되는가 싶지만, 합심 단결하여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시켜 나갈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고 썼다.

또 “고향에 돌아와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며 구성원들이 대학 발전에 매진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 유서는 총장실에서 발견됐으며, 순천대는 유족에게 유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영결식에는 임 총장의 유족과 장병안 민주당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영결식은 개회사에 이어, 유족의 분향 및 헌화, 조사와 추도사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임 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인출 의혹 등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13일 선산 인근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사랑합니다”고 썼다.

나원침 (8338) 김총두



광주 도심 양귀비 재배 광주경찰, 21명 적발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자신의 집 옥상과 뒷밭에 마약원료인 양귀비를 밀재배한 문모(63)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검거했다. 50그루 미만의 양귀비를 불법재배한 이모(52)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동구 산수동 단독주택 4층 자신의 집 옥상에 150그루의 양귀비를 불법재배한 뒤 건조시킨 양귀비로 술을 담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를 제외한 나머지 9명도 자신의 집 옥상이나 뒷밭에 양귀비를 밀재배한 뒤 양귀비를 추축해 삼승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집에서 양귀비 1500그루를 증거품으로 압수하는 한편, 광주지역 양귀비 불법재배 의심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목포경찰은 지난 14일 자신의 뒷밭에 양귀비 140그루를 밀재배한 장모(59·신안군 신외면)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검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울산 현대중·미포조선소 금품비리 수사

하청업체로부터 관행적 상납 10억 넘어

경찰이 울산과 미포조선소에 대한 금품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은 울산 현대중공업과 미포 현대 중공업 임직원 14명과 협력사 관계자 8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대상에는 현대 중공업 임원급 인사 5~6명도 포함됐으며 전체 금품수수 규모는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조선 물량 및 자체 납품 수급과 관련해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명절 떡값 등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고 양용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소는 공정별로 협력사를 선정해 등록하고, 협력사가 기술 인력을 투입하면 조선소가 본사 직원을 통해 공정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는 약자의 입장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면서 “일부 자백을 받았고 증거도 확보했기 때문에 사법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 경찰서에 오래 있을 생각마라

광주경찰, 무사안일 개선 15년차 전환배치 계획

광주경찰이 각 경찰서 경찰관들의 무사안일 근무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 교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지난 수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부와 남부경찰서 근무를 선호하는 반면, 서부·북부·광산 경찰서를 꺼리면서 구성 직원의 고령화 및 연령·계급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7년 광주경찰청 개청 이후 경찰서별 직무대만 적발 건수는 선호 경찰서인 동부와 남부

가 다른 3개 경찰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조직분위기 쇠퇴를 위해 한 경찰서 15년 이상 근무자 등을 위주로 경찰서 간 인력 전환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인사 교류 방침이 조직 쇠퇴에 기여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 A경찰서 한 경찰관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되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인사가 나는데, 지구대 노령화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치안서비스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희망자에 한해 타 경찰서로 전보되는 인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속버서 돈 슬쩍 ‘흔적’ 남겨 달미

○고속버스에 탄 30대가 여성 승객의 가방에서 돈을 훔쳤다

○16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최모(35)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마산을 출발해 광주로 달린 고속버스에서 잠이 든 이모(여·25)씨를 발견한 뒤 이씨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원을 훔쳤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최씨는 “용변이 급하다”며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 운암동 한 도로에서 내렸는데, 신승카드로 구매한 승차권을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 두고 내렸다가 역주적인 경찰에 걸렸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지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승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공공기관	지방직	9급 이간반	농업직/기술직
1. 공무원 시험 준비반 2. 공무원 시험 실용반 3. 공무원 시험 심화반	1. 공무원 시험 준비반 2. 공무원 시험 실용반 3. 공무원 시험 심화반	1. 법원사기보 2. 법원사기보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	1. 지방직 2. 지방직	1. 9급 이간반 2. 9급 이간반	1. 농업직/기술직 2. 농업직/기술직

합격도 전략이 필요하다!

고무인 합격설명회

공무원 합격설명회

11년 6월 22일(수) 14:30

최근 5년간 기출문제 + 고급노출점
중점반 고득점 20만원 상당 무료추첨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